

31

2025  
수시 합격생  
탈레이 인터뷰

전지유  
한양대 경영학부  
(경기 경민고)

## 암기형에서 탐구형으로! 뚝심으로 이뤄낸 경영학도의 꿈

또래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진로를 정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진로를 향한 열정은 결코 흔들린 적 없다는 지유씨. 탐구 하나, 도전 하나를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아쉬움이 남은 탐구는 다음해에 다른 관점으로 도전하고, 자신 없는 과목인 수학은 역으로 선택 과목 3개를 모두 이수했다. 뭐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보니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결과를 얻었다. 대학에서도 전공을 향한 관심을 촘촘히 이어가며 인생을 ‘학생부종합전형’ 처럼 살고 싶다는 지유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임하는 기자 [im@naeil.com](mailto:im@naeil.com) 사진 배지은



##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 〈기하〉〈미적분〉〈확률과 통계〉 이수

남을 돕는 직업을 갖고 싶었던 지유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세무사였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세금 신고를 하러 갔다가 세무사를 만났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느꼈고 관련 분야에 처음 관심을 두게 됐다. 세무 업무에서 출발한 관심은 재무회계 경제학 경영학으로 확장됐고, 고등학교 3년간 독심 있게 경영학부를 준비하는 기반이 됐다.

지유씨는 여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경영학의 특성에 맞춰 폭넓은 활동을 했다. 고학년이 될수록 어려운 개념을 활용한 탐구도 많이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학년 시절의 도전이었다. 공부 방법도, 경영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시기라 서툴렀지만, 그 덕분에 여러 차례 시도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1학년 때 사회적 기업을 직접 만들어봤던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직후라 배달이 활성화돼 있었고 일화용 배달 용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 다화용기 수거 사업을 제안했어요. 기본적인 수익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해 머리가 아팠지만, 며칠 동안 고민하며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서툴렀지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뤄낸 경험이 너무 재미있고 뿌듯했죠.”

지유씨의 도전 정신은 과목 선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문 계열이지만 〈기하〉〈미적분〉〈확률과 통계〉를 모두 선택해 이수했다.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수학에 약했던 지유씨는 ‘아예 놓아버리지만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고 자연 계열 학생 사이에서도 비교적 선풍할 수 있었다. 특히 경영학부와 밀

접한 〈확률과 통계〉는 1학과 2학기 모두 1등급을 받았고, 〈미적분〉은 1학기에 주춤했지만 2학기에 2등급을 끌어올렸다.

“전 수학을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수학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암기에 비교적 자신이 있어 시험 범위를 모조리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수학은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공식을 활용해 주어진 문제에서 단서를 찾아내 상황을 해결해야 하죠. 시간을 들여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끈기를 기를 수 있었어요. 고학년 때는 수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암기가 아닌 다른 학습법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끝까지 부딪치려고 노력했어요.”

사회탐구 과목으로는 〈경제〉〈사회·문화〉〈세계사〉〈세계지리〉〈정치와 법〉을 선택했다. 〈경제〉는 관심 분야와 직결돼서, 〈사회·문화〉는 사회 전반의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다. 〈세계사〉는 암기 강점을 살리려 택했고, 〈세계지리〉는 국제 경영에 관심이 있어 국가별 지리적 특성과 환경 요인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했다. 〈정치와 법〉은 특정 상황 속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워서 이수했다.

## 끝까지 파고든다

### 학년을 넘나드는 심화 탐구

지유씨는 공동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이었다. 수업만으로는 얻기 힘든 협업 능력을 기르고 탐구 기회를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활동에서 얻은 개념을 교과와 연결해 새로운 활동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2학년 때 내일신문·내일교육의 ‘FTA, 학교로 가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수행한 탐구를 3학년 <사회문제탐구>에서 재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음엔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FTA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싸게 접할 수 있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 등의 대규모 농장에서 농산물을 값싸게 수입하면 국내 소규모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몰랐던 사회 문제인 만큼 더 파고들어보고 싶었죠.”

지유씨는 감자를 대표 사례로 삼아 심화 탐구를 진행했다.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감자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감자 재배 면적은 감소함을 증명했다.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지역 농산품을 홍보하고 감자 식용유 상품을 만들자는 해결 방안을 냈지만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3학년 <사회문제탐구> 수업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CEPA 협정을 새롭게 알게 된 지유씨는 비슷한 형태의 협정을 더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FTA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CEPA는 이에 더해 경제 전반의 협력을 뜻한다.

“우리나라 김치는 유럽에서 인기가 있고, 농작물로 만든 건강식품은 아시아에서 수요가 있어요. CEPA 같은 협정을 더 많은 국가와 맺으면, 한국의 농작물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고 국내 소규모 농가도 상생할 수 있죠. 2학년 때는 홍보에만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3학년 때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본질적인 대안을 내놓았어요.”

2학년 때 공동 교육과정으로 들은 <세계문제와 미래사회>에서는 새롭고 재미있는 개념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지유씨는 이를 흥미에 그치지 않고 다시 자신만의 탐구 활동으로 확장했다. 수업에서 잠깐 언급된 ‘게임 이론’을 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개념



념이라고 여긴 지유씨는 3학년 진로 활동에서 이를 끄집어내 활용했다. 당시 ‘공유 경제’가 주목받던 때라 에어비앤비에 게임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반복 게임 이론’이라는 개념까지 알게 돼 심화 탐구로 이어졌다.

“에어비앤비는 공간을 이용한 수요자가 장소를 제공한 공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운영해요. 한데 수요자만 일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손해를 끼친다’는 반복 게임 이론을 적용해 상호 리뷰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공급자도 수요자가 어떻게 방을 쓰고 갔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3년간의 치열한 활동 끝에 지유씨는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종합전형으로 지원했다.

“고등학교 3년을 숨 가쁘게 보냈지만 관심사에 몰입해 마음껏 도전해본 경험이 의미 있었어요. 덕분에 경영학부 진학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 의미 있었던 선택 과목

■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관심 분야인 국제 경영은 사회 이슈를 잘 알아야 하는데 다양한 세계 문제를 다뤄볼 수 있어 좋았다. 학생들이 각각 한 국가씩 맡아 모의 유엔 총회 활동을 했는데,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토론의 질도 달랐고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설득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토론의 재미를 느끼고 지식도 많이 쌓았다.

■ **〈확률과 통계〉** 수학을 잘 못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좋았던 과목이다. 경영학부에 진학해 공부해보니 고  
 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 과목 내용 중에  
 전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듯하다. 특히 조건부 확률  
 을 공부하면서 학습한 베이즈 정리와 이를 적용한 탐  
 구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특정 브랜드 카페의 가격이  
 다른 카페보다 높음에도 판매량이 많은 점에 주목해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  
 고 많은 데이터를 시각화해 통계 포스터를 만들었다.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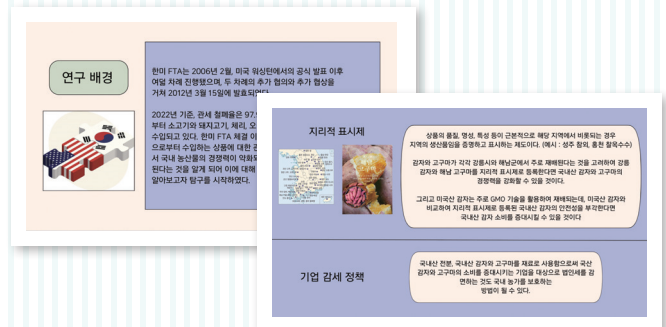
**1학년** **〈영어〉** 판매 전략과 소비 심리에 관한 글을 읽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기업의 업셀링 전략 사례와 유명 음료 광고의 연상 기법을 탐구함. 나아가 우리나라 식품업계 1위 기업을 선정해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 기업의 대표 전략인 협업 마케팅을 이용해 ‘스펀지밥 우유’라는 개성 넘치는 컵즈를 디자인하여 선보임

##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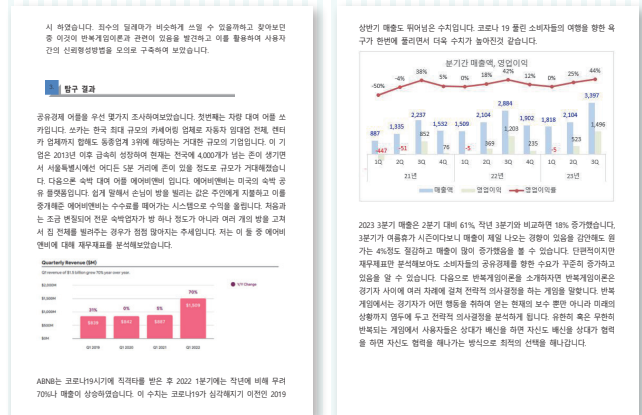
**2학년** **〈경제〉** 경제 유인을 분석하는 발표에서 사운드 마케팅을 주제로 기업가의 입장에서 상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래, 소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련 영상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친구들에게 흥미를 일으킴 **〈수학〉** 탐구심이 높은 학생으로 로그 차트를 주제로 선정한 프로젝트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주가 그래프를 조사하고 선형 차트와 비교하여 로그의 개념을 탐구함

## 3학년

**3학년** <정치와 법>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주제로 한 사회 이슈 토론에 참여해 장애인과 기업의 입장을 두루 조사하여 그들의 고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인권과 윤리, 법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보임



FTA 체결로 인한 소규모 농가의 피해에 주목한 탐구 활동 자료, 감자와 고구마의 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전분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국내 감자와 고구마 농가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봤다.



반복 게임 이론을 이용해 공유 경제에서 사용자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한 보고서. 상호 리뷰 시스템과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주요 창의적 체험 활동

■ **진로 활동(1학년)** ‘빅스텝 인상, 물가 안정에 옳은 대책?’을 주제로 찬성 측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함. 통계 차트를 활용해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의 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상대방을 설득시킴

■ **동아리 활동(2학년)** 교내 중고 물품 나누기 행사를 기획해 물품 수집부터 판매 방식, 게임과 상품까지 팀을 구성 후 회의를 총괄 진행함. 현금 판매가 안 된다는 학교 방침에 따라 기획이 무산될 뻔했으나 게임과 퀴즈 등을 통해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함

■ **자율 활동(3학년)** 독서를 통해 넋지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탐구하고 이를 교실 쓰레기통 분리수거에 적용한 경험을 소개함. 효과는 미미했으나 이후 넋지의 6가지 원칙을 활용해 자신의 방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함 @